

- 주요 뉴스: 미국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큰 폭 증가. 견조한 노동시장 변화 여부는 불확실
 - 미국 정부, 6.9조달러 규모의 '24 회계연도 예산안 공개. 재정적자 축소 등을 강조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ECB는 인플레이션 제어 위해 노력할 방침
 - 중국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년 만에 최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기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 우려 등이 영향

주가 하락[-1.9%], 달러화 약세[-0.4%], 금리 하락[-9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2월 고용보고서 경계감과 은행주 약세 등이 주요 요인
유로 Stoxx600지수는 부동산 관련주 중심으로 0.2%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그 동안의 상승이 과도하다는 인식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3% 및 0.9% 절상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저가매수 유입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약보합

※ 원/달러 1M NDF환율(1323.5원, +1.3원) 0.3% 상승, 한국 CDS 보합

		3/9일	3/8일	전일대비			3/9일	3/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18.3	3,992.0	-1.85%	국채 금리 10y	미국	3.90%	3.99%	-9bp
	유럽	459.98	460.99	-0.22%		독일	2.64%	2.65%	-0bp
	중국	3,276.1	3,283.2	-0.22%		영국	3.80%	3.77%	3bp
	일본	28,623	28,444	0.63%		CDS 5y	한국	42bp	42bp
	한국	2,419.1	2,431.9	-0.53%	위험 지표	중국	71bp	70bp	1bp
	달러지수	105.25	105.66	-0.39%		EMBI+	-	387	-
환율	유로화	1.0581	1.0545	0.34%		VIX	22.61	19.11	18.32%
	엔화	136.15	137.36	0.89%		WTI유	75.72	76.66	-1.23%
	위안화	6.9651	6.9592	-0.08%	원자재	구리	403.4	404.2	-0.20%
	원화	1,322.2	1,321.4	-0.06%		금	1,831.0	1,813.8	0.9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큰 폭 증가. 견조한 노동시장 변화 여부는 불확실

- 3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전주 대비 2.1만건 늘어난 21.1만건을 기록하여 5개월 만에 최대. 추세 파악에 용이한 지표로 인식되는 4주 평균 청구건수도 전주 대비 0.4만건 증가한 19.7만건
-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노동시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 편. 아울러 일부에서는 뉴욕시 학교 근로자(버스 운전기사 등)의 계약 관련 분쟁에 따른 일시적 왜곡현상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 노동시장 내 수요 우위 추세가 바뀌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 통화긴축 영향이 지속된다면 수요 우위의 노동시장 여건도 변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들은 아직까지 직원을 유지하는데 좀 더 집중(High Frequency Economics)
-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시장 상황이 점진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최근 1~2개월 대기업의 해고를 고려한다면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의 증가는 당연한 결과이며, 향후에도 더욱 많은 기업들이 경기둔화 등을 대비하여 직원 축소 혹은 신규고용 지연 등에 나설 전망(Bloomberg Economics)
- 한편 3/10일 2월 고용보고서 발표 앞두고 긍정적 결과로 인한 통화긴축 강화 우려가 증가. 신규 고용건수가 전월에 비해 감소(51.7만→20.5만)하지만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또한 연간 임금상승률은 올라가고(4.4%→4.7%) 실업률은 동일한(3.4%→3.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정부, 6.9조달러 규모의 '24 회계연도 예산안 공개. 재정적자 축소 등을 강조

- 6.9조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 이번 예산안은 부유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 등을 통해 향후 10년에 걸쳐 3조달러의 재정적자 축소에 나서겠다는 정부 의지를 포함. 다만 공화당도 자체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양측의 의견이 달라 향후 예산안 관련 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한편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은 부채상한 확대 관련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분석. 공화당이 벼랑 끝 전술 구사할 수 있다고 언급

■ 미국 4/4분기 가계 순자산, 전기비 증가. 주가 상승 등이 주요 원인

- 작년 4/4분기 가계 순자산은 전기비 2% 늘어난 147.7조달러를 기록. 해당 기간 주가 상승 등으로 주식 평가액이 2.7조달러 늘어난 반면, 주택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자산 평가액은 0.1조달러 감소

■ 연준 부의장, 암호화폐는 금융혁신 유도할 수 있으나 안전장치 필요

- 마이클 바 부의장은 암호화폐 기술이 금융시스템에 잠재적인 혁신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나,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편 암호화폐가 전통적인 은행시스템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당국이 이에 대한 대비를 효과적으로 마련하여 관련 충격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ECB는 인플레이션 제어 위해 노력할 방침

-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상반기 내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ECB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까지 떨어뜨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 식품가격의 강력한 상승세는 몇 개월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

■ 중국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년 만에 최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기대

- 2월 소비자물가(CPI)의 연간 상승률은 1.0%로 '22년 2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고, 근원 CPI 상승률 역시 전월비 하락(1.0%→0.6%). 생산자물가 연간 상승률 역시 -1.4%를 기록하여 전월(-0.8%) 대비 낮은 수준
- 중국은 높은 실업률과 부동산 경기 부진의 장기화 등을 고려한다면 디플레이션 상황에 있으며, 이에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가능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ANZ)

■ 일본 중의원, 우에다 차기 일본은행 총재 임명안 가결

- 중의원은 우에다 지명자를 가결했고, 참의원은 3/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번 안건을 표결할 계획. 시장에서는 무난한 통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3/10 현지시각 기준)

- 미국 2월 고용보고서, ECB 라가르드 총재 강연, 일본은행 3월 통화정책회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 공급부문의 중요성 확대 등 새로운 구조적 변화가 진행 - WSI

(Here's Why the Economy Seems Weird)

- 최근 미국 경제는 '00년 이후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근본적 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 ① 과거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은 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
- ② 과거에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 역(-)의 관계가 미약하여 연준은 실업률 상승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가능. 이는 당시 인플레이션(연율)이 3% 이하로 낮았기 때문. 하지만 최근과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는 연준이 물가안정을 위해 실업률 상승을 유도
- ③ 과거 금융시스템은 규제완화 및 세계화 등으로 자산가격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충격에 취약.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부채축소와 규제강화 등 건전성 향상 조치가 지속되면서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에도 경기침체 징후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

■ 미국의 경기침체, 회피된 것이 아니라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 - 블룸버그

(Has a Recession Been Postponed? Jobs Data May Tell)

- 최근 경기침체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문제는 시기. 경기선행지표(LEI)에 반영된 경기침체 발생 확률은 낮은 반면, 기업이익 정체 등은 경기침체가 임박했음을 시사. 경기침체 우려에도 노동시장이 견조한데 이는 기업의 노동력 보유(labor hoarding) 기조 때문인 것으로 추정.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월 고용보고서 결과가 중요
- 단기적 측면에서 최근 경기침체 발생 위험이 다소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회피가 가능하다고 확신하기에는 미흡. 단지 경기침체가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통화긴축 영향이 완전히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경기침체도 연말에는 위험자산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

■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정부부채 감소 등 일부 긍정적 효과 기대 - 블룸버그

(A Little Inflation Is Good for the Conservative Cause)

- 높은 물가상승률은 정부부채 규모 축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일부 연구에 따르면, '20~'22년 인플레이션이 선진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을 6%p 떨어뜨렸고 물가와 부채 간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
- 물론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인한 금리인상이 미래 부채부담을 늘릴 수도 있지만, 노동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통한 자원 재분배 효과로 생산성이 높은 이들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 기업도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 확대 유인이 증가

■ 러시아와 유럽의 에너지 전쟁, 소모적인 양상으로 전개 - Financial Times

(Russia's energy conflict with Europe is turning attritional)

-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차단하면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면서 EU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기대. 그러나 온화한 날씨와 중국 수요 부진으로 에너지 대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
- 한편 유럽은 러시아가 서방의 금융시스템에서 단절되면 전쟁을 치를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 그러나 우회로를 통해 중국, 인도 등으로 석유를 수출. 아울러 G7의 러시아 석유수출 가격에 대한 상한제 역시 아직 실제 효과가 매우 제한적. 다만 이러한 양측의 갈등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

■ 미국과 유럽의 무역 논쟁, 미국 주도로 기우는 양상 - Financial Times

(Transatlantic trade disputes are moving to a new US-controlled rhyth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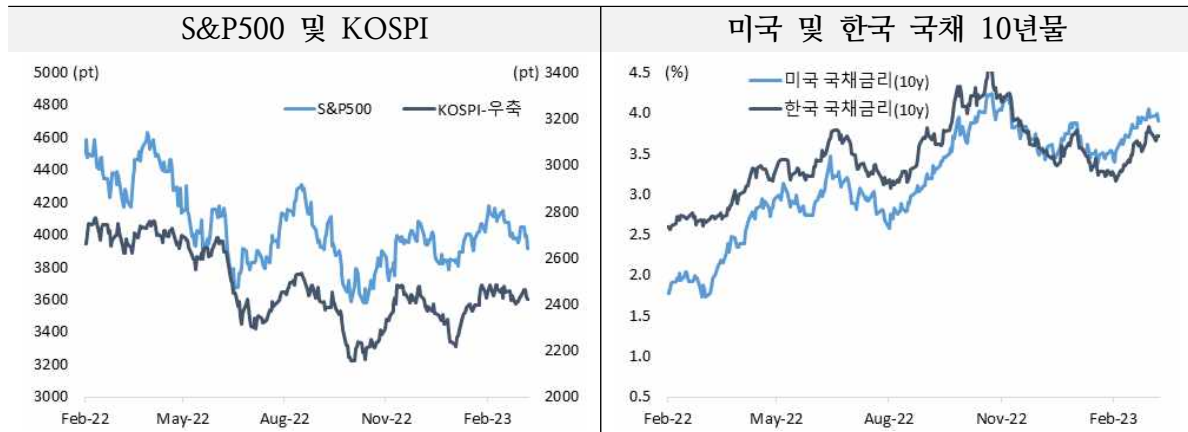
■ 미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 중국 국영기업에 오히려 유리할 소지 - WSJ

(Yellen's Global Minimum Tax Is a Boon for Beijing)

■ 중국 부동산 부문 해외채권 협상 난항,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 - WSJ

(China Property Sector Left in Limbo by Stalled Debt-Restructuring Talk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